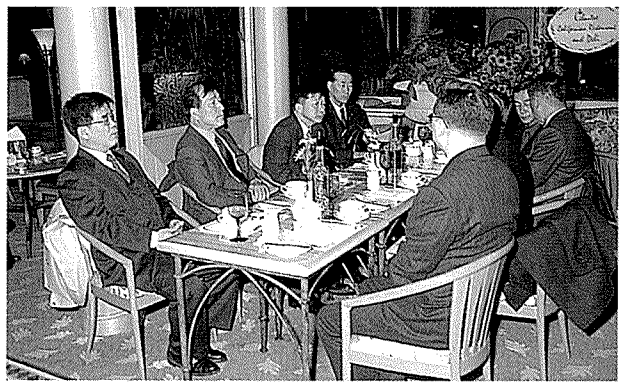
가격 할인 출혈 경쟁 내년부터 '진정 국면' 들어설 듯

프랜차이즈 업체, 창립기념일 외에 할인 않기로 원칙 합의



↑지난 11월 19일 열렸던 프랜차이즈 5개사 사장단 회의 모습.

가격 할인과 관련한 출혈 경쟁이 내년부터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대한제과협회(회장 권상범)는 올들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격 할인의 경쟁을 줄이기 위해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자들과 회동을 갖고 공동 합의문을 작성했다.

지난 11월 12일 프랜차이즈 업체 영업 이사들이 참가한 실무 협의를 통해 가격 할인을 자제키로 하는 합의 결정을 이끌어 낸 대한제과협회는 지난 19일 5개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들로부터 실무 협의에서의 합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추인을 받았다.

이날 공동합의문 추인에는 고려당 김지정, 뉴욕제과 김정기, 신라명과 홍평우, 크라운베이커리 윤영달, 파리크라상의 김영덕 대표이사가 추인했으며, 이들 5개사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가격 할인 행사를 하지 않되 창립 기념일에 한해 단기간 할인행사를 할 수 있다' 라는 조항과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홍보물을 부착한 자회사 상품의 덤 행사는 하지 않는다' 는 2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이번 공동 합의문 작성은 지금처럼 제살깎기식 출혈 경쟁이 계속될 경우 업계 전체가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그동안 가격 할인 행사를 주도해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내년부터 이를 자제할 것으로 보여 가격 할인 경쟁이 진정 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합의 사항과는 무관하지만 모 프랜차이즈 업체가 사장단 모임이 끝난 직후인 11월 20일부터 전격적인 사은행사를 펼침으로써 모처럼 마련된 화해분위기가 냉각되고 있다.

'98 하이박경연 성황리 폐막

실용 제품 증가 '수준 향상' 돼

'98하이박 경연대회가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0월 31일 폐막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식빵, 조리빵, 페이스트리 3개 부문에 총 176명이 열띤 경연을 펼쳐 대상에 부산 비드프랑스 과자점의 남상백씨를 비롯한 31명의 입상자를 가렸다.

'1품목 1배합 1모양' 이라는 규정이 새롭게 추가된 이번 대회에서는 91명이 참가한 식빵 부문이 독창성과 실용성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고 48명과 37명이 각각 참가한 조리빵과 페이스트리 부문도 기술 수준이 향상돼 전반적으로 지난 대회에 비해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하이박은 매출 부진 등 어려운 업계사정으로 참가신청이 저조하리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295명이 참가를 신청했으나 실제 경연 인원은 176명으로 참가율이 59%에 그쳐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연구회 · 밀알회

'제과 경영 연구회' 로 정식 통합

프랜차이즈 업체 임원진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제과 연구회(이하 프랜차이즈 연구회)와 업계 중견 기술인들로 구성된 밀알회가 '제과 경영 연구회' 로 통합됐다.

프랜차이즈 연구회와 밀알회는 지난 10월 31일 개최한 임시총회 자리에서 두 모임의 회원이 중복되는데다 모임의 성격이 유사해 통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총회에서는 회장에 임헌양 신라명과 부사장, 수석부회장에 백정관 독일빵집 대표이사, 부회장에 홍행홍 제과학교 교장과 곽승남 뉴욕제과 전무, 감사에 송두호 뉴욕제과 상무, 총무에 윤태영 수원제과제빵학원 부원장, 부총무에 이영수 서울하인즈 이사, 홍보에 김석중 대한제과협회 기획 실장 등 회장단과 임원진을 선출했다.

약 25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제과경영연구회는 앞으로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업계 발전을 위한 의견 및 정보를 교류할 계획이다.